

우리대학 LA캠퍼스 시대 개막

동국로얄대학교 교명 변경 ... 현지학기제 등 교류활성화 기대



▲ 지난 5일 DULA캠퍼스에서 글로벌 비전선포식에서 오영교 총장과 DULA 교무위원들이 함께 축하하고 있다.

우리대학이 석사과정 한의학 대학원으로 운영해 오던 LA의 동국로얄대학교를 현지 캠퍼스로 전환했다.

우리대학은 지난 5일 동국로얄대 개교 30주년을 맞아 현지에서 오영교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비전선포식'을 열고 현지 캠퍼스로서 역할을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밝혔다.

동국로얄 대학교는 우리대학이 지난 97년 로얄 한의과 대학을 인수해 동국로얄 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한 뒤 정회원 200명의 한의학 전문대학원으로 운영돼왔다. 그리고

올해 개교 30주년을 맞이하여 동국로얄 대학교 교명 변경을 DULA로 변경한 뒤 우리대학의 글로벌 거점 대학으로 새 출발할 예정이다.

현지 캠퍼스 DULA는 경주캠퍼스 한의학과와 교류를 통해 공동연구소를 개설하고 한약재 개발 등을 통한 수익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한의학 석사과정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DULA의 교과과정을 캘리포니아 지역의 대학들과 공동으로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한국학부와 국제학부를 신설할 방침이다.

한국학부에는 동국대만의 특

화 분야인 불교학, 문학, 영상문화 콘텐츠학 등의 과목이 개설 예정이며 교포 2~3세 및 외국인을 신입생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국제학부의 경우 우리대학 서울, 경주 캠퍼스의 재학생들을 학기 단위로 파견해 교육하는 '현지 학기제' 형식으로 운영한다. 또 우리대학은 추가적인 사업으로 향후 2~3년 내에 미국의 간호사 수급 불균형이 예상됨에 따라 간호대학의 설립도 고려중이다.

한편, 우리대학은 DULA 내에 E.L.S Summer School을 개설해 서울과 경주캠퍼스 학생들을 파견해

영어 연수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 인턴십 프로그램도 개설해 우리대학 재학생들이 본교의 등록금만 내면 미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 경주 재학생들을 한 학기씩 파견하는 '현지 학기제'는 학생들에게 글로벌 경험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학생들이 DULA에 국제학부에서 공부할 할 경우 미국 현지인을 연결시켜 주는 1:1 튜터링 제도도 운영된다.

또 한국어 강화를 이수한 외국학생이 국내 캠퍼스에 입학할 경우 DULA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여 외국인 학생의 국내캠퍼스 입학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 교포 2~3세의 한국 방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외국인 및 교포를 서울과 경주 캠퍼스로 유치할 수 있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의학과 뿐 아니라 일반 학과로까지 단계적으로 서울캠퍼스와 LA 캠퍼스간의 학생교류를 확대 발전시켜 양 캠퍼스간의 복수취위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한편, 오영교 총장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장차 기금 조성을 위한 LA 동문 행사에 참석했다.

이정민 기자
jeong0424@dongguk.edu

운길산 연습림 개발사업 가시화

남양주시와 연계 ... 환경생태·교육 특성화지구 조성

'운길산 연습림 부지의 수익을 레저시설 개발'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남양주시와 우리대학이 연계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함께 자연환경생태교육에 관한 특성화 지구 사업을 펼치려는 국내 최초다.

현재 개발예정지역인 경기도 남양주시 운길산 연습림 부지는 약 240만 평. 이 부지는 팔당상수원보호지구와 그린벨트로 지정돼 그동안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 만큼 우수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또 중앙선 전철화로 운길산역이 생김에 따라 우리대학에서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게돼 교통수단도 개선됐다. 우리대학은 이런 자연보존 생태지구의 장점을 살려 친환경교육시

설 및 연구 공간 마련에 집중시킬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연습림 부지의 레저시설 개발로 인한 수익을 자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사업개발실이 계획하고 있는 연습림 부지 개발은 크게 생태교육(EDU-ZONE), 자연 체험(EXP-ZONE), 자연휴양(REC-ZONE) 세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생태교육 분야의 사업으로는 식물보존관의 운영, 유기농 체험관 갖춘 생태학습관 등의 운영이다. 생태 교육 관련 사업은 우리대학 바이오시스템 교수진들의 연구 인력을 활용해 활성화시킬 방안을 모색 중이다.

자연체험 분야의 사업으로는 우리대학 표고버섯재배 기술을

바탕으로 한 버섯체험, 기존 연습림에 조성되어진 숲 체험장의 관광단지 개발 계획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자연 휴양 관련 사업으로는 삼림욕장 조성, 남양주시장배 운길산 산악마라톤과 같은 이벤트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운길산 연습림 부지의 교육 및 레저시설 개발 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업개발실의 김규환 과장은 "운길산 연습림 개발은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자본이 생태적인 개발의 모델을 만든다는 취지아래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그동안 제한적으로만 활용됐던 연습림을 다양도로 개발한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철관 기자
lan@dongguk.edu

조정래 석좌교수 '태백산맥' 200쇄 돌파

연속출판물로서는 국내 최초 ... 700만부 이상 판매



우리대학이 배출한 조정래(국문 66쪽) 석좌교수가 쓴 대하소설 '태백산맥'이 200쇄 고지를 돌파해 한국 문학의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출판 200쇄 달성은 2005년 조세희 석좌교수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이후 가장 많은 기록이며 다권본으로는 최초이다.

▶관련기사 5면

10권의 책으로 이루어진 '태백산맥'은 장편 대하소설로 1987년 완간 이후 독자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해방 직후의 우리 민족의 이념 갈등을 그려낸 이 작품은 분단 문학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작품엔 주요 등장인물이 무려 300여명이 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태백산맥'과 관련해 조정래 석좌교수는 오랜 기간 지적성 시비에 시달려왔으며 1994년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발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는 고초를 겪기도 했다. 무혐의 처분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때가 되어야 내려졌다.

졸업연기자 비율 증가 휴학생은 예년 수준

경기 체제에 따른 취업난으로 대학을 휴학하고 졸업을 연기하는 학생의 비율이 증가된 것으로 집계됐다.

교무팀이 지난 4일 집계한 2009년 1학기 우리대학 휴학생 현황에 따르면 휴학생 수는 작년 4월에 집계한 6,474명보다 16명 감소한 6,458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비해 2009년 1학기 졸업연기자 수는 66명으로 2008년 1학기 39명에 비해 169%나 증가했다. 이번 학기에 휴학한 한 4학년생은 "1학기를 남겨두고 취업이 부담된다"며 "휴학하는 동안 경력을 쌓는 일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구부 한태만 선수 청소년 국가대표 선발

우리대학 축구부 소속 한태만(FW) 선수가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U-20 청소년 국가대표에 선발됐다.

한태만 선수는 지난 2일 오전 11시 파주NFC(축구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첫 소집 훈련에 참가했다. 그리고 1차 훈련을 한 뒤 오는 3월 16일부터 24일까지 2차 소집 훈련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3월 말부터 이집트에서 열리는 3개국 친선대회에 출전할 계획이다.

문과대 인문학 강좌 운영기관 선정

서울시 지원받아 저소득층 위한 인문학 강좌 개설

서울시가 주관하는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과정' 운영기관에 문과대(학장=박승희·영어영문학)이 선정됨에 따라 약 1억 6천 5백 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문과대학 학사운영실 박만규 실장은 "현재까지 확정된 금액은 1억 6천 5백 만원이지만 추후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과정' 사업은 서울시 내 노숙인, 저소득층

에게 배움을 통한 자활의지를 불어넣고자 기획된 사업으로, 지난해 300여명이었던 참가 인원을 1,500여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번 사업의 주 골자는 인문학 강좌 코스의 운영이다. 강의는 6개월 과정으로 3월, 5월 두 차례에 걸쳐 개설할 예정이며 분야는 철학, 문학 역사 등 5개 분야의 인문학이다. 인문학 강의에는 우리대학 60여명의 교수진이 파견될 계획이다.

학생들이 일궈낸 200만 달러의 결실

GTEP 사업단 소속 김재훈 등 4명 ... 뛰어난 마케팅으로 수출 성공

우리대학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GTEP) 사업단 2기 사업 1팀이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제 13회 싱가포르 뷰티아시아 국제 박람회에 의성홍마늘농조합의 홍마늘액기스와 통홍마늘을 가지고 참가해 200만 달러 상당의 계약과 80여건의 상담실적, 3천달러 상당의 현장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김재훈(행정4), 최성욱(국통4), 박의준(국통4), 이시현(경제3) 군으로 구성된 GTEP 2기 사업 1팀은 지난 2월 23일~25일까지 싱가포르 섀넌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뷰티아시아2009'에 참가해 독특한 홍보전략 및 부스디자인으로 외국 바이어들의 주목을 받았다.

사업단은 2008년 12월 14일 의

성홍마늘농조합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해외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해외마케팅전략을 구성해 왔으며 시장분석 및 홍보, 물품운송과 부스설치, 제품상담과 계약체결 등 해외마케팅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했다.

또한 GTEP사업 1팀은 지난 26일 싱가포르 한인회와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해외마케팅관련 제반사항들을 공동적으로 교류 협력하기로 했다. 김재훈(행정4) 사업총괄 국장은 "지역농가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농가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일조하는 것이 사업팀의 취지"라며 "홍마늘뿐만 아니라 사과와 인과 같이 다양한 지역농산물 가공 식품으로 수출품을 확장해 갈 것"

이라고 밝혔다.

GTEP사업은 지식경제부가 주관하고 한국무역협회가 지원하는 정부정책사업으로 기업이 요구하는 현장중심형 글로벌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송실대를 시작으로 우리대학과 경희대 등 국제통상 관련 학과가 있는 전국 19개 대학에 사업단이 구성됐다. 우리대학 GTEP사업 1팀은 농수산물가공식품의 수출다변화, 지역경제 활성화, 우리중소기업의 지원, 수출증대를 통한 국가경쟁력향상이라는 목표아래 해외마케팅전반에 관련된 사항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정용재 기자
wonder@dongguk.edu

중등교원 임용고사 모두 79명 합격

우리대학 2009학년도 교원임용고사 합격자 수가 79명으로 알려졌다. 합격자는 2006년 40명, 2007년 52명, 2008년 67명으로 현재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임용고사 합격자 중 민태욱(가교·03)씨는 역사 과목 서울 지역 수석을 차지했으며 가정교육과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서울 지역 최다 합격자를 배출했다.

학과별 합격 수는 다음과 같으며 본 자료는 현재까지 파악된 자료로 추가될 수 있다.

△국어교육과 = 11명, △역사교육과 = 15명, △지리교육과 = 11명, △교육학과 = 4명, △수학교육과 = 10명, △가정교육과 = 19명, △체육교육과 = 5명, △교육대학원 = 4명

어शल픈 허물을 벗고 동대신문사로 날아오르라

치열하고픈 스무살을 51번째 수습기자로 초대합니다

- 지원자격 09학번 신입생
- 모집대상 취재기자, 사진기자, 편집기자
- 접수방법 www.dgupress.com에서 온라인 접수
- 원서마감 3월 12일(목) 오후 5시
- 면접일시 3월 12일(목) 오후 6시
- 문의 위 홈페이지의 게시판 또는 02)2260-3491~2
- 혜택 소정의 장학금 및 활동비, 신문사 내 개인PC 제공, 인턴학점 인정

가진 자를 위한 'MB노믹스', 약자 보호는 외면

대기업과 특정계층 우대하는 경제정책, 서민·노동자층에겐 희생 강요



글 쓰는 순서

1. 법치주의의 허구성 : 누구를 위한 법치주의인가
2. 경제 정책 : 가진 자를 위한, 가진 자의 'MB 노믹스'
3. 사회·복지 정책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몰이해
4. 언론 정책 : 재갈뭇린 표현의 자유

서민들에게 더 가혹한 2009 미국발 경제위기

미국 발 금융위기가 영향을 받아 시작된 한국경제 침체는 2008년 4/4분기 경제성장률이 -3.4퍼센트를 기록하는 등 마이너스 성장국면으로 진입하면서 11년 전인 1998년 외환위기에 버금할 만한 심각한 상황으로 접근해가고 있다.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는 현재의 경제 위기가 외환위기 당시보다 훨씬 더 위험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는 외환위기 당시에는 수출이 두 자리 수를 유지하여 조기에 외환위기를 탈출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오히려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8년 -18.2퍼센트, 12월 -

17퍼센트, 올해 1월 -32.8퍼센트로 이어지는 수출 추락은 우리 경제 성장을 역성장장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로는 정규직 직장인이 외환위기 시기처럼 정리해고나 실직이 되었을 때 자영업이나 비정규직과 같은 일자리로 옮겨가기조차 힘들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외환위기 당시에는 대기업 과잉충족 투자로 인한 부실 → 대형 은행 부실 → 중소기업과 자영업 부도로 이어지는 '고용의 하향 충격 전달구조'를 나타냈다.

그러나 지금은 자영업 경영악화 → 임시, 일용직 고용시장 악화 → 중소기업 정규직 → 대기업 정규직의 경로를 따라 경기침체 충격이 '고용의 상향 충격 전달구조'를 띠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악화되어가는 고용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여

지가 매우 좁은 실정이고 고용불안이 곧바로 노동자와 서민들을 한계상황으로 내몰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외환위기보다 심각하다.

셋째로 외환위기 당시에는 대기업과 은행의 부실로 부족해진 자금을 외국 자본을 유치해서 메워놓았다면 지금은 오히려 국내에 들어온 외국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약 37조원에 달하는 주식을 팔아 달러로 바꾸어 빠져나갔는데 이것이 우리 금융위기와 환율 폭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결국, 내수와 수출의 동시 추락, 노동자와 자영업 고용의 동시 악화, 국내자금과 해외자금 조달 사정 동시 악화라는 양상이 1998년 외환위기보다 침체의 폭과 깊이도 심화시킬 것이고 침체의 충격으로 인한 한계상황 도래도 빠르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걱정을 더해가고 있다.

메우려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매각할 공기업의 자산 가치는 떨어지고, 은행 대출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대규모 자본을 동원할 투자자를 찾는 것이 극히 어려워지면서 공기업 매각, 즉 민영화 자체가 대단히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우조선해양이나 쌍용건설은 물론 14개 공적자금투입기업 가운데 당초 매각을 추진하려고 했던 하이닉스나 현대건설, 그리고 금융지주회사 설립 후 민영화 단계를 밟으려고 했던 산업은행은 매각 시도조차 아직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둘러 공기업 매각한다면 필연적으로 '헐값 매각'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2월 13일 지식경제부는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기관 중 해외 자본이 관심을 가질 만한 대우조선해양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하이닉스반도체 등을 적극 해외매각하여 부족한 외환을 조달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또한 정부는 2009년 1월 15일 5차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111개 공공기관 출자회사와 손자회사 지분을 팔아 4조 6,000억 원의 매각 수입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나라 재산인 공기업은 한번 팔아버리면 그것으로 끝이다. 다시 회복될 수 없는 불가역적인 정책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의 공적 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여러 가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국가재산은 5년차리 행정부가 집권기간 5년만을 내다보고 관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훗날 역사에서 공기업 팔아서 경제위기 탈출을 시도한 유일한 나라로 꼽힐 수도 있다. 그 불명예를 이명박 정부가 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고수하는 이명박 정부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제위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각 국가들은 이전과는 뚜렷이 대비되는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경제위기 이전까지 주류를 이루던 규제완화, 감세, 민영화, 개방화, 작은 정부와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속속 폐기하고, 경제위기에 대처하고자 과거와는 반대로는 규제강화, 국유화, 보호무역주의, 정부개입 강화와 같은 정책수단들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경제위기 이전과 이후가 결정적으로 구분될 만한 정책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즉, 실질적인 의미에서 위기대책이라고 할 만한 경제정책이 없었다는 것이 경제위기가 시작된 이명박 정부 1년 경제정책의 평가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금산분리 완화와 자본시장 통합법 강행,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1차에서 5차에 이르는 이른바 '공기업 선진화 계획', 감세 조치 발표와 중부세 무력화, 수차례에 걸친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와 최근 4대강 정비사업, 그리고 한미 FTA추진에 여기에 해당한다.

공기업 헐값 매각 장기적으로 피해 우려

특히 대기업과 부유층을 위한 감세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주요 공기업들을 팔아서 부족한 세금을

최저임금 인하 추진 고용유지는 애써 외면

예상되고 있는 세계적인 고용대란을 앞두고 각국 정부는 고용보호와 유지를 위한 각종 대책과 추가 일자리 창출대책을 세우느라 부심하고 있다.

신인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30일,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약화된 노동조합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 연방정부 계약업체들을 상대로 노동조합 금지, 단체교섭권 공시, 계약업체 교체시 고용승계 등을 명시한 3건의 행정명령을 서명했다.

신자유주의 종주국인 미국조차도 노동 유연화를 강화하기 보다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고용유지를 꾀하고자 한 것이다.



▲ 대기업의 로고가 새겨진 고층빌딩과 대조적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모습

그런데 이와 달리 우리 정부는 정 반대의 방향으로 치닫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임금 삭감정책을 고용정책이라고 내놓으며 임금 삭감기업에 세제지원을 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많은 비정규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 최저임금법이 기업에게 부담이 된다면서 최저임금을 낮추는 시도마저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들 정책이 고용유지와 확대에 기여할지 의문시됨은 물론, 경제 불황을 핑계로 기업들이 자행할 무분별한 노동자 피해행위를 정부가 알잡서 조장하고 여기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주고 있는 꼴이다. 반대로 고용과 임금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선의의 중소기업들에게는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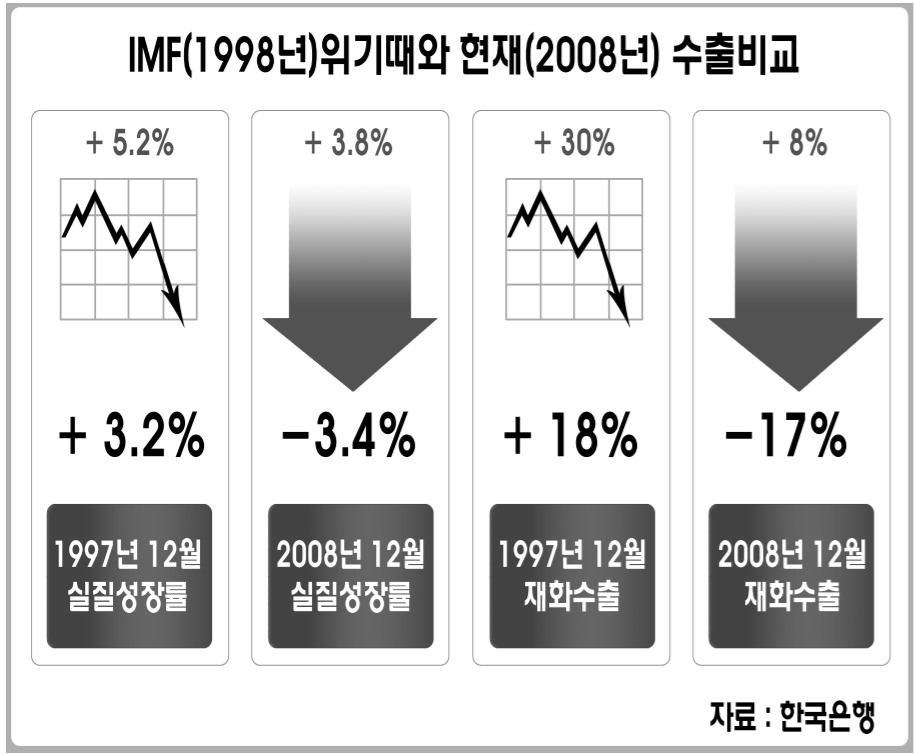
경제민주주의에 위배되는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

대기업과 부유층을 위해 감세를 해주

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국민의 재산인 공기업 매각하는 것, 그리고 노동자에게 임금삭감을 요구하면서도 고용유지 확대에는 소극적인 것은 분명히 다수 국민의 이익을 지켜야 하는 민주주의 원칙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외환위기 이후 경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명박 정부는 경제 민주주의를 더욱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발견된다.

지난 1월에 발생한 '용산 참사'는 바로 개발업자들의 이익을 위한 자영업인들의 희생 강요가 충돌하면서 발생한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

김 병 권 연구센터장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정각원 토요일법회 및 불교대강좌 안내

저명한 불교 학자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명사들이 불법의 진수를 생동감 있게 전해드립니다. 스님들의 다양한 수행법과 깨어 있는 생활법문은 여러분의 삶을 즐겁고 향기롭게 합니다.

■ 법외안내
◇ 일시: 매주 토요일 (1부) 기도법회 오전 9시 30분 (2부) 불교대강좌 오전 10시 30분
◇ 장소: 동국대학교 정각원 법당
◇ 대상: 불교에 관심 있는 누구나

■ 불교대강좌안내
◆ 불교 입문반
○ 시간: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동국대학교 강의실
○ 대상: 불교를 처음 접하는 누구나

◆ 불교 성전반
○ 시간: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동국대학교 강의실
○ 대상: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

◆ 불교 경전반(신규개설)
○ 시간: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동국대학교 정각원 명상실
○ 대상: 경전공부를 심도있게 하고 싶은 분

◆ 어린이 불교영어 법회(신규개설)
○ 시간: 매일 2, 4주 토요일, 오전 10시
○ 장소: 동국대학교 정각원 명상실
○ 대상: 초등학교(4,5,6학년)

◆ 삼천배 철야정진
○ 시간: 매일 첫째 토요일 오후 8시30분 ~ (철야)
○ 장소: 동국대학교 정각원 법당
○ 대상: 동참 회망자 누구나

정각원 연락처
02)2260-3016-8
http://jeonggak.dongguk.edu

월	일(토요일)	강좌 주제	강사	비고
3	14(음.18) 21(음.25) 28(음.2)	이항경의 이해 한국불교의 세계화 28(음.2) 29(음.3) 30(음.4)	송위식 정명준 정명준	음지대학교 교수 문과대학 교수(한국불교연구원이사장) 신재사찰음식연구소장
4	4(음.9) 11(음.16) 18(음.23) 25(음.1)	생활법회 불교와 정치 불교와 사회학 불교와 경영의 지혜	주영철 김유진 유필환	전)조계종 교육위원장 한나리당 국회의원 육수종합사회복지관장 성균관대학교 교수
5	9(음.15) 16(음.22) 23(음.29) 30(음.7)	생활법회 심리상담 금강경의 경사상	최정혜 정명준	* 부처님 오신 날 (불축일 제외) 한마음선원 예총대학 교수 불교대학 명예교수
6	6(음.14) 13(음.21) 20(음.28) 27(음.5)	생활법회 불교와 연극 불교의 흥흥, 명상 불교 흥흥의 생활화	김부지 레이미스님 박우연	불교대학 명예교수 선)단일불교방송 진행 텔런트, 영화배우 수행공동체 제2대나 연성대학 교수(광고회사 별종 사장)
7	4(음.12) 11(음.19) 18(음.26) 25(음.4)	생활법회 스리랑카 불교 불교의 체계적 이해 불교와 법	현진성 정준영 권기중 정명준	서울 여의도 포교원장 불교대학 강사 불교대학 명예교수 법과대학 교수(학장)
8	1(음.11) 8(음.18) 15(음.25) 22(음.3) 29(음.10)	생활법회 붓다의 우주관 금강의 불교 불교의 예술 불교의 철학적 사유	지관스님 이시우 이영진 이영택 김형호	등인선원 원장 천)서유대 교수 창원대학교 교수 예술대학 교수(서울예술단 대표감독)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결계 신청 및 포살 참여 안내

◎ 스님들은 반드시 필독하시기 바랄 ◎

■ 결계 신청
1. 접수 기간 : 2009. 3. 2(월) ~ 2009. 3. 13(금) 17:00까지
2. 접수 장소 : 정각원 사무실
3. 접수 대상 : 2009.1학기 동국대학교에 재학중인 조계종 스님
* 대상자 예시 : 2009.1학기 위촉 강사 스님, 대학원재학 스님
* 현재 학적 상태가 휴학 또는 수료자인 경우, 관할 또는 거주지 교구본사에 접수바람.

■ 포살 참여 : 1. 포살 일시 : 2009. 3. 19(목) 오후 5시 ~ 2. 포살 장소 : 정각원 법당
* 기타 문의 사항은 정각원 사무실 ☎2260-3016로 문의 바랍니다.

교수 연구도서 구입제도 안내

중앙도서관에서는 교수님들의 안정적인 연구지원 체제의 일환으로, 교수님들의 연구에 필요한 도서를 적시에 제공하는 '교수 연구도서 구입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신청 및 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1. 구입 대상 : 본관에 소장하지 않은 외국도서 중 국내에 소재하지 않는 도서
2. 시행 시기 : 2009학년도 2연중
3. 신청 방법 : 아래의 구입처(7번)에서 도서를 구입한 후, 도서와 영수증을 중앙도서관 학술정보관리팀(담당 최일우, 교내 3447)으로 제출
4. 도서 처리 : 구입한 도서를 학술정보관리팀에 제출하면, 도서는 당일(오전 접수-오후 열람, 오후 접수-익일 오전 열람) 처리하여 대출하여 볼 수 있도록 함
5. 대금 처리 : 구입도서 대금처리(지정된 은행계좌로 입금)도 당일 처리하여 재무회계팀으로 해당 서류를 접수하므로 3-4일 이내 입금 처리(인터넷 서점에서 구입 시 운송료 등 비용 전액 처리함)
6. 구입 금액 한도 : 인문, 사회분야는 500,000원(1회당), 자연분야는 1,000,000원(1회당)내에서 구입 가능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전 협의 바람)
7. 구입처 : 가. 외국 서점(현지 구입만 가능, 국내 지점은 제외) 나. 외국 학회(현지 구입) 다. 인터넷 서점 : 1) 국내 인터넷 서점 : 교보문고 해외주문, 인터넷파크 해외주문, YES24 해외주문 2) 미국 : Amazon 등 3) 일본 : 紀伊國屋書店-bookweb.kinokuniya.co.jp 등 4) 중국 : 中國書店-http://www.zgsd.net, 風入松-http://www.forestsong.com.cn 등
8. 기타 : 교수 연구도서 구입제도 시행에 대한 문의 사항은 중앙도서관 학술정보관리팀(교내 3447, 담당 최일우)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제18기 전통사찰음식조리강좌 수강생모집

◆ 강 사 : 선재스님(사찰음식연구원, 가정교육과 객원교수)
◆ 교육기간 : 3월 17일 ~ 6월 2일(10회)
매주 수요일 10:00 ~ 13:00
◆ 대 상 : 동국인 남녀 누구나 선착순 30명
◆ 진행방식 : 이론 + 조리실습 + 시식
◆ 교육장소 : 학림관 조리실습실(501-132호)(사법대 1층)
◆ 수 강 료 : 100,000원(재료비)
◆ 접 수 : 3월 2일(월) - 17 (화),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 문 의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 2260-8853-5, gender@dongguk.edu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 가정교육과

2009학년도 1학기 양성평등서포터즈 모집

1. 목적 : - 양성평등서포터즈는 '교육봉사'를 주 목적으로 하는 활동
- 양성평등서포터즈는 양성평등, 성희롱, 성관련 문제들에 대해 일반학생들보다 전문적인 소양을 갖춰야 함.

2. 모집인원 : 50명 (남·녀 비율 : 50대 50)

3. 모집기간 : 2009년 2월 23일(월) ~ 3월 11일(수)까지

4. 선발방법 : 전화접수 ☎2260-8854 후 신청서(학교홈페이지 일반공지 참고)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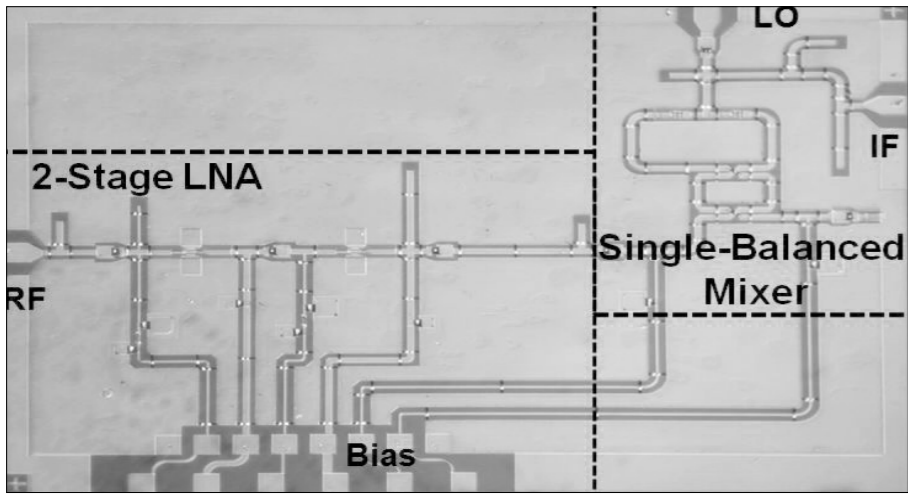
5. 활동계획(안)
- 활동기간 : 3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 정기모임 : 매주 목요일 저녁 6시~8시
- 활동내용 : ◆ 양성평등상담소의 역할과 기능을 많은 학생들에게 알리는 홍보대사의 역할
◆ 상담소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를 알리고 이를 지원하며 포레상담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활동

6. 제출방법 : (1) 직접 방문제출 : 계산관A동 1층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양성평등상담소
(2) E-mail 제출 : gender@dongguk.edu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이진구 교수팀, One-chip MMIC 개발

레이더 센서용 부품 두 개의 칩을 합쳐 소형화, 국산화 성공



▲ 위의 칩은 레이더의 부품인 소음 감속 LNA와 Mixer를 합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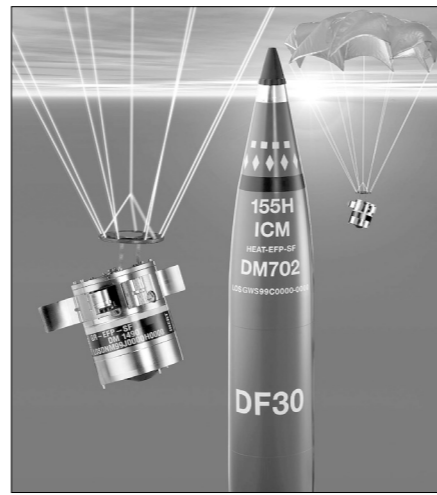
우리대학 밀리미터파기술연구소의 이진구 교수팀이 레이더 센서에 들어가는 중요 칩 두개를 합쳐 국내의 레이더 센서를 더욱 작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

평소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 무선기, 위성방송, 레이더 등은 전파를 이용하는 데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 이용하는 전파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전파가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는 무선기는 낮은 헤르츠의 전파를 쓸 것이고, 비교적 멀리 나갈 필요가 있는 위성기는 높은 헤르츠의 전파를 쓸 것이다. X헤르츠는 1초에 X번 진동하는 전파란 뜻이다. 여기에 기가 헤르츠는 헤르츠의 10의 9승배를 뜻하는데 이 교수 팀이 연구하는 밀리미터파는 30GHz에서 300GHz까지의 대역을 의미한다.

특히 연구는 75에서 110 GHz까지의 대역인 W-Band에 집중된다. 이 대역에 동작하는 레이더 센서들은 동작 특성이

매우 우수하고 고해상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센서들은 자동순항장치, 스마트 폭탄, 밀리미터파 이미징 시스템 등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전파 시스템들은 대부분 Homodyne FMCW 방식을 따르고 있다. 여기서 Homodyne FMCW방식이란 전파를 쬐서 표적에 맞힌 반사된 전파로 표적의 정보와 거리를 알아내는 방식이다. 박쥐가 초음파를 쬐서 길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리이다. 이러한 센서들은 자동차나 폭탄의 작은 부품으로 집적되어야 하므로, 소형이면서도 우수한 성능과 높은 신뢰성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그 레이더 센서에 들어가는 부품을 소형화하고 신뢰성이 높은 MMIC로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MMIC(Milimeter-wave Monolithic Integrated Circuit) 즉, 밀리미터파 단일 집적 회로는 여러 가지 전파 중 특정한 전파



▲ One-chip이 탑재 될 Smart 폭탄의 모습

를 인식할 수 있게 만드는 귀와 같은 역할을 하는 회로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 이진구 교수팀은 94GHz에서 동작하는 FMCW 레이더 센서용 MMIC를 소형화시키는 설계 및 제작 기술을 개발해낸 것이다.

레이더의 부품 중에는 소음을 낮추주는 LNA(Low Noise Amplifier)와 저주파기저대역으로 밀리미터파를 변환시켜주는 Mixer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합친 것이다. 이러한 발상의 전환으로 인해 이 교수 팀은 One-Chip MMIC칩을 더욱 소형화시키고 가격도 저렴하게 만들 수 있었다.

이 칩은 현재 개발되고 있는 Smart 탄에 탑재될 예정이다. Smart 탄은 표적에 대하여 바라는 피해효과만큼 선택적 피해를 입힐 수 있어 경제적인 전쟁을 이끌 수 있게 하고 빠른 시간 안에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역할을 한다. 국제사회에선 이렇게 전쟁에 승패를 가를 수 있는



▲ FMCW 수신기가 장착 된 레이더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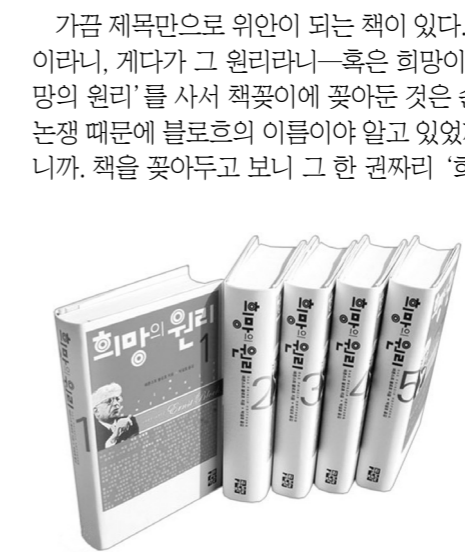
MMIC 기술을 보호하는 보안 경쟁도 치열하다. 이 때문에 MMIC의 부품 및 시스템을 국내 자체 기술로 개발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One-Chip MMIC 개발은 이 말고도 미사일 추적기, 사격통제 장비, 무인 항공기 제어부, 무인 CCTV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 되고 있다. 이렇게 94 GHz FMCW 레이더 센서용 One-Chip MMIC는 군사적 용도 뿐만 아니라 밀리미터파 대역의 다양한 시스템에서 비중 있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이진구 교수팀의 One-Chip MMIC의 개발은 우리나라의 레이더 기술을 한층 더 발전시킬 호재로 작용될 전망이다.

이영희 기자
blueeagle@dongguk.edu

<2> 희망의 원리

권보래 교수의 시련을 극복하는 책임기



희망의 원리
지은이 : 에른스트 블로흐, 박설호 역
펴낸곳 : 열린책들

가끔 제목만으로 위안이 되는 책이 있다. '희망의 원리'도 그런 책 중 하나다. 희망이라니, 게다가 그 원리라니—혹은 희망이 원리라니. 오래 전 한 권짜리로 나온 '희망의 원리'를 사서 책꽂이에 꽂아둔 것은 순전히 제목 때문이다. 루카치와 유명한 논쟁 때문에 블로흐의 이름이 아깝고 있었지만, 책을 살 만큼 호감이 깊었던 건 아니니, 책을 꽂아두고 보니 그 한 권짜리 '희망의 원리'는 총 5권으로 구성된 본책의 제 4권 '자유와 질서' 편만을 번역한

소산이며, 역자가 전책 번역을 하고 있지만 어디 출판되기가 쉽겠냐는 등의 풍문도 듣게 되었다. 마음에 드는, 그러나 섣된 입을 용기가 나지 않는 옷을 사서 걸어두고는 때때로 그 옷을 보는 것만으로 즐거워하는 것처럼, 오랫동안 책꽂이를 훑을 때마다 '희망의 원리'를 발견하면 흐뭇해 하곤 했다. 희망의 원리라, 에른스트 블로흐였다. 언젠가 만나야지. 도망가면 안 돼, 거기 꼭 붙어 있어.

몇 년이 지나서야 한 권짜리 '희망의 원리'를 읽었다. 유토피아에 대한 상상을 개관하되 '자유'의 경향과 '질서'의 경향을 짚어낸 책이었는데, 뜻밖에 책은 구미에 썩 맞지 않았다.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자유'의 유토피아로 그려내고 캄파넬라의 '태양의 나라'를 '질서'의 유토피아로 평가한 대목이 특히 거슬렸다. '유토피아'를 읽다가 모두 똑같은 옷을 입는다는 그 획일성에 질리고 '태양의 나라'를 읽으며 남녀 모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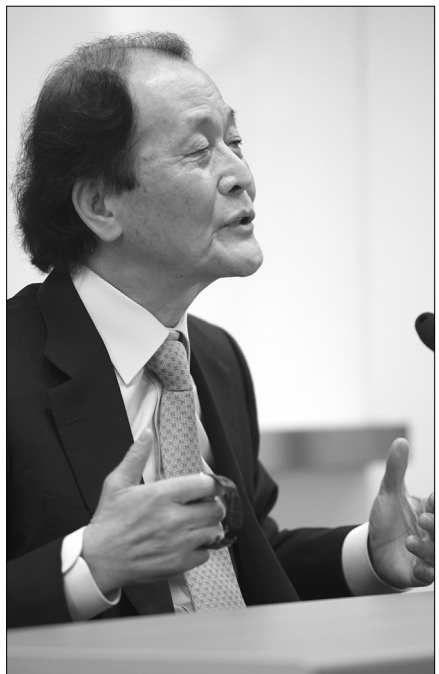
나체인 채 짝짓기 상대를 살핀다는 발상에 깔깔대며 두렵아서였나 보다. 여가마저 진지하게 즐기는 것 같아서 '유토피아'는 어찌 무서웠고, 적도 부근의 풍요로운 자연 속에 자리잡은 '태양의 나라'에서라면 천근만근 노동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 괜히 마음이 쓸렸다. 가톨릭을 수호하면서 왕권에 맞서다 처형당한 토마스 모어의 '자유'고, 몇 번이나 종교재판정에 서고 혹독한 고문을 견뎌낸 캄파넬라는

'질서'라 이거지— 마음속으로 인신공격성 댓글을 휘갈기면서 불뿔대기도 했다. 유대인이라, 이렇게 작게 증명했는지도 모르겠다. 맑소사.

그리고 2004년, '희망의 원리' 완역이 출간되었다는 '사건'을 접했다. '감동 먹었다'. 역사 박설호 선생의 이름을 꼭꼭 기억해 두고, 조만간 사 두리라 다짐했다. 블로흐의 독일어 문장이 너무도 압축적인 까닭에 번역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소문을 들은 터라 '사건'은 더 인상적이었다. 제 4권 '자유와 질서' 편을 심드렁하게 읽어낸 후였지만 '희망의 원리'라는 제목이 주는 생생한 매력도 바래지 않았다. 공공연한 맑소주의자였으나 결국 서독으로 망명한 그 생애도 더 문제적으로 보였다. 다섯 권, 3천여 페이지로 번역된 '희망의 원리'는 그야말로 문화의 전 영역을 섭렵하면서 '더 나은 삶에 대한 꿈'을 읽어내고 옹호한다. 10대 때 공상에는 물론이고 '음식이 솟는 탁자'며 '알라딘의 마술램프'에도 꿈은 깰어 있다. 날선한 몸매에 대한 환상과 쇼윈도예의 도취, 가면을 썼을 때의 쾌감과 근질근질하는 충동, 연애에의 열정과 결혼 후의 환멸에도 위태로운 대로 꿈은 출렁이고 있다. 블로흐는 싸구려에 뒤죽박죽인 채로나마 우리의 공상과 환각과 도취가 모두 꿈꾸는 행위임을 보여준다. '꿈과 삶 사이의 간극은 해롭지 않다.' 꿈을 계속 삶 속에 던져쓰는 한, 살고 살리기 위해서 꿈을 쓰는 한, '희망의 원리'는 인류라는 큰 단위를 전제하지만, 힘든 시절, 책을 내 대토로 이용해 본들 어쩌려. 이 글을 보내고 나서야말로 '희망의 원리' 전권을 사러 서점에 가야겠다. 무직한 무게를 느끼며 책을 들고 돌아와, 꽂아둔 채로 또 몇 년을 즐겨워하리라. '희망의 원리'란 그 제목만으로 황홀한 책이니.

“평화 통일은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

조정래 석좌교수 200쇄 발간기념 저자와의 대화



▲ 독자와 대화하고 있는 조정래 작가

한국사회에서 조정래 석좌교수의 '태백산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 대학 국문과를 졸업한 조정래 석좌교수의 태백산맥이 200쇄를 넘어섰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200쇄를 넘은 작품은 조세희 석좌교수의 '난장이가 돌아왔다' 뿐이다. 조세희의 '난장이가 돌아왔다'는 한국 문학 사상 처음이다. 조정래 석좌교수는 지난 5일 오마이뉴스 분관 스튜디오에서 독자 50명과 저자와의 대화를 가졌다.

"처음 문학이란 무엇인가"란 주제로 운을 댄 조정래 석좌교수는 분단 극복 문학을 쓰는 소설가를 휘발유를 들고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사람이라고 묘사했다. 작가 자신도 "민족 분단의 현실 앞에서 자

신인 문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했던 일은 얼룩진 역사를 객관적으로 켜내는 것"이었다고 밝혔지만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이었다고 그는 회상했다.

"2005년 무명의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수많은 고초와 인내를 겪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1994년 국무파들에 의해 고소되어 오랜 시간 동안 검찰에 수사를 받는 등 심리적인 고통에 시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리랑', '한강' 등을 집필하며 우리 민족이 평화 통일을 이뤄 낼 수 있다는 희망을 꺾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도 "전쟁은 정치가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벌이는 용서받지 못할 행위"라며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

는 우리 민족은 경제적 연합, 문화적 화합, 정치적 통합으로 나아가는 3단계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래 석좌교수는 개성공단, 부산 아시아 게임의 소통 등을 예로 들며 이것이 우리 민족의 통일이 가능하다는 증거가 아니겠냐고 말했다. 만약 제 2, 3의 개성공단이 생기고 남남북녀가 남북을 상관이 없고 사돈을 맺어 나간다면 새로운 민중에 의해 정치적 통합도 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민족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평화 통일은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통일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영희 기자
blueeagle@dongguk.edu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학생여러분의 학습을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http://site.dongguk.edu/user/ctl/index.html)

▶ 3월 학습법 워크숍 : 내 안의 집중력을 찾아서- 집중력 관리전략

집중력은 학업 및 업무의 효율을 좌우하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24시간 내내 높은 집중력을 발휘할 수 없고 모든 활동이 동일한 수준의 집중력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활동이 어느 정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지를 판단하고 그에 맞추어 자신의 집중력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학습법 워크숍에서는 집중력을 조절하고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자기 자신의 욕구와 목표를 이해하고 또한 집중력 향상법을 배우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집중력을 조절하고 높이는 방법을 배워 보세요.

가. 일시 : 2009년 3월 19일(목) 14:00~16:00
나. 내용 : 내 인생 최고의 집중력 타인을 통한 자기 이해하기 나의 욕구 이해하기 집중력 향상법
다. 강사 : 이명경(한국집중력센터(주) 대표)
라. 대상 : 학부생 및 대학원생 80명
마. 장소 : 다학관세미나실

▶ 학습상담실시 : 학습하는데 있어 개인의 성격적 특성, 학습의 어려움, 학습방법의 효율성 등을 진단·상담을 실시합니다.

학습상담 신청·접수 / 학습상담 상담지 E-mail 발송 / 학습상담 상담지 작성 / 상담일정 예약 / 학습상담 제공 / 학습상담 피드백제공

* 문의 : 교수학습개발센터 전임 연구원 하오선 ☎ 2260-8813

2009년 상반기 <영어권문화연구> 원고 모집

1. 학술지명 : 영어권문화연구(여름호)
2. 일반주제 : 인문학과 관련된 자유 주제
3. 용도 지역 : 교수, 연구원, 강사, 대학원생(박사과정) (단, 연구소장 추천과 편집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석사과정 대학원생도 논문제재를 신청할 수 있다.)
4. 용도 편수 : ○ 권 내외
5. 논문 분량 : 200자 원고지 100~150매
6. 논문 마감일 : 2009년 5월 30일
7. 발간 예정일 : 2009년 7월 1일
8. 제출 방법 : 한글97(한글 97 이상)로 작성된 논문을 E-mail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9. 논문 제출처 : E-mail : gloomybk@hanmail.net(장보경 조교) 홈페이지 : cafe.daum.net/iecs
10. 문의처 : 100-715 서울 중구필동 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영어권문화연구소(연락처 : 02-2260-8530)

* 특별 혜택 : 향후 우수논문들에 대해 심사를 통해 단행본 출간 예정(영어권문화연구소 총서 시리즈)

* 논문 작성 요령은 연구소 홈페이지내(cafe.daum.net/iecs)첨부 투고규정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며 투고규정을 따르지 않은 논문은 반환시킬 수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영어권문화연구소

교양수학 튜터링 안내

1. 기간 : 2008.03.09 ~ 06.19
2. 일시 : 월 ~ 금, 오후 2~5시
3. 장소 : 과학관 109호 교양수학/개인교습실
4. 문의 : 수학과사무실 (02-2260-8712)

수학과

2009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에서는 재학생들의 글쓰기를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의 공모전과 특강을 기획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http://writing.dongguk.edu / TEL : 2260-3380 FAX : 2260-3385

생각하는 코끼리 想象예찬, 2009-1 동국 글쓰기 공모전

제4회 동국 우수 보고서 공모

●자 격 : 동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공모대상 : 2008년 2학기 / 2009년 1학기 교양 수업 보고서
●시상부문 : 감성문(독서감상문, 영화비평, 일반기행문) 일반보고서(그 외 일반) 최우수상 1명 300,000원 우수상 2명 각 200,000원 장려상 9명 각 100,000원

제3회 동국 독서와 글쓰기 공모

●자 격 : 동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공모부문 : 자유부문 / 교양부문 부문별 도서 목록은 글쓰기센터 홈페이지 참조
●공모영역 : 독서감상문(A4 5~7매 내외 자유 형식)
●시상내역 : 최우수상 1명 300,000원 우수상 2명 각 200,000원 장려상 5명 각 100,000원
●기 념 품 : 독서와 글쓰기 공모전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주머니 파우치를 증정합니다.)

2009년 1학기 글쓰기 아카데미

강좌
●일반 보고서 작성법 | 수 17:00-19:00 조형래(국어국문학과 강사)
●외국인을 위한 보고서 작성법 | 수 16:00-18:00 최유권(한국어교육센터 전임강사)
●취업 글쓰기 특강 | 수 17:00-19:00 하성란(국어국문학과 강사)
●비판적 사고와 논리적 글쓰기 | 목 17:00-19:00 이철호(문화예술원 전임연구원)

강의기간
2009년 3월 18일(수) ~ 4월 10일(목)
*4주과정 / 강의당 주1회 2시간(총 8시간)

기 타
강의계획서 및 강의실은 홈페이지에 추후 공지됩니다. 글쓰기 아카데미 참여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공통사항 : 노트, 주머니파우치
*외국인을 위한 보고서 작성법 수강자 : 외국인을 위한 보고서 작성법 핸드북
*취업 글쓰기 특강 수강자 : 취업 글쓰기 길라잡이

■신청기간 | 글쓰기센터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 확인 후 센터로 직접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접수 이메일 : baby-b-boy@hanmail.net)
■등록기간 | 2009년 3월 2일(월)~2008년 3월 13일(금)
■신청대상 | 동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수강료 | 각 강좌당 20명 선착순 마감 / 수강 신청시 수강료 10,000원 남부(3/4 출석시 환불) * 수강 신청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입해 주십시오. (성명, 학과, 학번, 연락처, 이메일 주소(우수보고서의 경우 강좌명, 담당교수명도 기입))

글쓰기센터 상담 프로그램
취업글쓰기 상담, 일반보고서 상담, 보고서집중 상담은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이메일, 또는 udri.ms를 통해 미리 상담 신청을 하고 예약된 날짜에 글쓰기센터로 찾아와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홈페이지 참조)

달하나천강에

녹색성장이 한국의 미래다

본인이 연구소장으로 있는 황사·사막화방지연구소는 2008년 '동국대학교 자비의 숲'을 조성했다. 풍골의 사막에 나무를 심음으로써 황사가 우리나라에 끼치는 피해 및 사막화를 막기 위해서다. 다음은 자비의 숲 조성에 참여했던 신방과 박선주 양의 글이다.

'우리의 나무 심기 작업이 시작되었다. 몽골은 비가 자주 내리지 않는 곳이다. 그래서 물이 잘 스며들 수 있게 구멍을 깊게 파야 한다. 그래야 물이 고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대학에서 개발한 포플러 1700그루와, 폴란드 산 묘목 200그루 등 모두 2천2백여 그루를 심었다. ... (중략) ... 사막화를 막기 위해 왜 나무를 심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선명하게 느껴졌다'

바이오시스템대학은 '자비의 숲'과 같은 녹색성장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미래의 연구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녹색성장에 대한 개념 정립은 4-5년전으로 지난 2005년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UNESCAP회의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녹색성장의 의미는 경제성장을 하되 성장의 패턴을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지

속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즉, 주요 환경 오염원인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를 개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교육기관인 대학이 앞장서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문가를 육성해야만 한다.

바이오산업과 대학

녹색성장은 굉장히 생소하여 신기술이라기보다는 기존에 개발된 BT, IT, NT, ET 기술을 융합하여 환경을 깨끗하게 정화시켜나가는 복합분야이다.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정립된 배경은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만들어진 지구환경과 관련된 3대협약이라고 할 수 있는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 생물다양성협약을 이행하는데 정신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지구온난화방지 및 사막화방지를 위한 녹색성장, 더 나아가 생물다양성을 유지 보존하기 위한 녹색성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지구촌을 녹색으로 푸르게 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이 해결 열쇠다.

신성장 동력

먼저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공해를 흡수 저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식물 및 미생물 개발, 인간건강으로부터 오염된 생태계 복원, 물이 부족한 황량한 사막에서 살 수 있는 식물개발, 멸종위기에 처한 식물 유전자원 보존 및 활용, 사막에 날려있는 모래 등의 광물질을 이용한 새로운 자원 개발, 식물유전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 개발, 숲에서 다양한 질병을 쉽게 진단 및 치료가능한 입타머기술 등이 BT, IT, NT, ET가 융합한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바이오 신성장 동력산업이라 할 수 있다.

바이오 시스템대학으로 변화

우리학교 바이오시스템대학은 지난 50여년동안 농림대학, 농과대학,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등을 거쳐면서



강호덕
바이오시스템대학
환경생태공학과 교수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와 전통을 가미하여, 올해 2009년에 바이오시스템대학으로 개편한 바 있다. 특히, 바이오시스템대학에서는 의생명공학 분야를 신설하여 생명과학분야와 의생명공학분야를 접목하여 신성장 동력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육성해 나가고 있다.

식품과학 분야는 식품자원에 공학 및 과학기술을 적용하여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고 효율적인 유통시스템으로 소비자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고양해 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녹색성장과 관련된 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신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다. 바이오자원 개발, 친환경 소재개발, 녹색 생태계 복원, 지속가능한 개발 등의 분야를 집중시켜 녹색성장을 위한 시너지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대학의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녹색성장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분야를 종합하여 대형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단과대학을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나가고 있다.

보리수

데바닷타의 특별 공양

해주스님

불교대학 불교학과 교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사성 죽림원에 계시 때에 데바닷타는 특별한 공양을 많이 받는 일이 있었다. 마가다왕 아사세가 날마다 5백 수레에 5백개의 술에 술 밥을 싣고 와서 데바닷타에게 공양했다. 데바닷타도 5백명의 다른 대중을 거느리고 그 공양을 받았다.

그때에 많은 비구 스님들이 이른 아침에 가사를 입고 밥우를 들고 왕사성에 들어가 결식하다가, 그 말을 듣고 돌아와서 그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데바닷타가 많은 이익을 얻는다고 칭찬하지 말라. 왜냐하면, 데바닷타가 따로 공양을 받으면 현세에도 스스로 말할 것이요 후세에서도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유하면 파초나 갈대는 열매를 맺으면 곧 죽고 이듬해에도 죽는 것처럼, 데바닷타도 그런 이익을 얻으면 현세에서도 망하고 후세에서도 망할 것이다. 또 비유하면 노새는 새끼를 배면 반드시 죽는 것처럼, 데바닷타도 그러한 온갖 이익을 얻으면 현세에서도 망하고 후세에서도 망할 것이다. 저 어리석은 데바닷타는 얼마 동안 그 이익을 받지마는 반드시 긴 밤 동안 이익이 없는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비구들은 마땅히

이렇게 마음먹어야 한다. '비록 내게 이익이 있더라도 거기에 물들어 집착하지 말라'고.”

그리고 다시 한 번 계승으로 설법하셨다.

열매 맺으면 파초는 죽고 갈대도 또한 열매 맺어 죽으며 노새는 새끼 배면 반드시 죽고 사람은 탐착으로 스스로 망하니

울지 않은 것을 항상 행하면 어리석음을 면하지 못하니 착한 법은 그에 따라 날마다 줄어 줄기 마르고 뿌리도 상하리라.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법은 방편으로써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이미 일어난 악법은 방편으로써 없애게 하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법은 방편으로써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선법은 방편으로써 그것을 더 넓히도록 부지런히 정진해서 무상한 고통을 없애고 해탈케 하셨다.

화엄경에는 '나쁜 짓을 하려는 것은 모두 성취되지 않고, 선한 일은 빨리 이루어지이다' 라고 발원하게 하는 말이 있다. 그리하여야 나와 남이 모두 행복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문칼럼

우승의 조건

동부 프로미 농구단은 창단한지 2년만에 07-08시즌 KBL 통합우승을 이루었고 08-09시즌에도 정규리그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다. 우승의 비결은 뭘까.

어떤 이는 한국 농구 최고 선수 김주성이 있고, 천장진이라는 최고의 감독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말한다.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러나 큰 관점에서 본다면 선수, 코칭스텝, 프런트 삼박자와 팬들의 함성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을까.

간혹 어떤 이들은 동부 농구단이 센터 놀음이나 하는 재미없는 수비농구를 한다고 말한다. 동부가 높이를 바탕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스타일은 맞다. 그러나 과연 농구가 키가 크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스포츠일까. 동부 농구단은 10개의 프로 농구단 중에서도 운동량이 많기로 소문이 난 팀이다. 큰 신장에 가려진 팔과 노력은 보이지 않는 것일까.

우리 농구단의 이광재(가드·프로2년차) 선수는 지난 시즌 체중을 10kg 가량 감량했다. 이광재 선수는 체중 감량 비결을 묻는 한 팬의 질문에 "동부 프로미 농구단에 오세요. 다이어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재치 있게 대답했다. 이어 이광재 선수는 "우리 팀의 가족 같은 분위기가 우승의 비결"이라고 말했다.

이광재 선수의 얘기처럼 난 동부의 우승이 무엇보다도 프로정신을 바탕으로 한 가족같은 분위기가 낳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프로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한계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우리는 흔히 프로라고 하면 운동선수만을 지칭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던 프로라는 생각으로 행동해야 한다. 대학생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아직 서툴고 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 위치에 머물 수밖에 없다. 높은 지향점을 가지고 프로처럼 행동해야 한다.

비시즌 동안 혹독한 체력훈련을 통한 시즌 대비를 하는 선수들과 코칭스텝이 있었기에 도전과 조직력 있는 플레이를 할 수 있었으리라 본다. 팬들은 그런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과 환경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한 마음 한 뜻으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목표의식과 자기만이 가질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성과를 창출해야만 하지 않을까? 프로는 결과로 말한다. 동부프로농구단은 비시즌의 팔과 노력을 팬들에게 성과라며 보여주지 않는다. 앞으로도 동부는 우승과 승리로 팬들 앞에 나설 것이다.

동대신문을 읽고

학내신문으로서의 책임감

개강호 동대신문은 산뜻함이 있었다. 새내기를 맞을 준비를 하는 선배의 마음 같은 설렘과 함께 선배라는 무거운 책임감이 엮여 있었다.

그러나 대학면의 단순 사실보도는 온전한 사실보도는 아닌 듯하다. 특히 '운집산 연습팀 개발...'이라는 기사는 대학의 수익창출이라는 큰 주제만을 던진 채 끝나 아쉬웠다. 만약 대학본부가 등록금 동결로 재정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면 대학이 세운 계획과 그 전망까지도 상세히 보도돼야 했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와 민주주의 위기'는 좋은 기획이라고 본다. 법, 경제, 사회복지, 언론으로 나뉜 장기기획시리즈였는데, 민주변론 편집장인 황희석 변호사의 유연하면서도 논리적인 글이 와닿았다. 사진이나 컷의 쓰임도 대학언론보다는 기성언론의 세련됨이 느껴졌다. 다음 호가 기대되는 기획면이었다.

학술면은 딱딱한 점이 있었다. 판소리를 좀 더 쉽게 풀어낼 수는 없었을까. 익숙지 않은 판소리 용어 속에서 읽기를 포기한 이들이 나만 아낀 듯 하다.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기사였다면 좋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관수 교수의 칼럼은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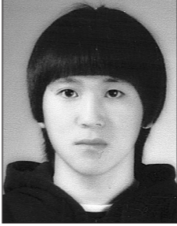
편했다. 책을 소개하는 내용임에도 책과는 다른 재미를 줬다. 책표지와 출판사 등을 넣어준 것도 좋은 편집이었다고 본다.

여론·칼럼 면은 상대적으로 가치의 판단이 아쉬운 면이었다. 박재영 선배의 '최경주의 힘'과 같은 동문칼럼이 달하나 천강에와 위치가 바뀌어야 되지 않았을까. 물론 영여강의도 무시할 수 없는 주제이다. 하지만 최경주의 끈기와 집념이 일군 PGA의 성공이 새롭게 마음을 다잡는 신학기에 어울리는 주제였다.

만평은 지나간 주제인 했지만 다시 한 번 곱씹어 볼만 했다. 나 역시도 조중동과 방송사의 자극적인 강호선 보도에 귀를 모으고 웅성참사의 울음을 듣지 못했다. 한 번쯤 우리들 스스로 반성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다.

8면 문화면은 흥미있었다. 동국문학의 역사부터 신춘문에 대거 당선 배경까지, 동국인으로서 자긍심을 느꼈다. 독립영화이야기 또한 '워낭소리'가 시발점이긴 했지만 꾸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미에서 앞으로 기대되는 칼럼이었다.

개강호를 통해 산뜻한 출발을 다짐한 동대신문. 더 활짝 날개를 펴고 학내 구성원들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다리가 됐으면 한다.



김학민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2학년

세상돋보기



악법아닌 악법?

언론노동조합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안을 언론장악을 위한 MB악법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의 "악법이 아닌 악법"이라고 강변한다.

2009년 3월 2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언론장악저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총파업 6차 대회를 진행했다.

한 취재자가 총파업 6차 대회에서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박종원(철학과 4학년)

꿈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선택!

ROTC

ROTC(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는 대학 재학생 중에서 우수자를 선발, 2년간 군사교육을 실시하여 문무를 겸비한 리더를 양성하는 최고의 리더십 과정입니다.

학군사관 후보생 제50기 모집

교육/복무기간

- 후보생기간 : 2년(3, 4학년)
- 복무기간 : 입관 후 2년 4개월

지원자격

- 학군단이 있는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2, 3학년 남자로서 '84. 3. 1 ~ '92. 2. 29 출생자
- ※ 단, 3학년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5년제 학과, 복수전공 등에 한함.

선발방법

- 1차선발 : 필기고사 + 대학성적으로 정원의 200% 선발
- 2차선발 : 체력검정 / 면접평가 / 신체검사 실시
- 종합성적순으로 정원의 130% 선발
- 3차선발 : 신원조회 합격자 중 종합성적으로 최종선발 (선발정원 + 예비 20%)
- ※ 종합성적 = 필기고사(300점) + 대학성적(200점) + 체력검정(200점) + 면접평가(300점)

모집일정

- 지원서 접수 : '09. 3. 2 ~ 27(4주)
- 필기고사 : 4. 4(토)
- 1차 합격자 발표 : 4. 24(금)
- 체력검정, 면접평가, 신체검사 : 4. 27 ~ 5. 15(3주)
- 2차합격자 발표 : 6. 12(금)
- 신원조회 : 6. 15 ~ 8. 14(9주)
- 최종합격자 발표 : 8. 21(금)

다양한 혜택

- 조직관리의 경험을 전수하여 리더십과 자신감 배양(취업시 프리미엄으로 작용)
- 각계각층의 ROTC 선후배들의 인적 Network 형성
- 전공학문 탐구하는 대학생활과 더불어 장교 양성과정을 동시에 교육
- 재학 기간을 이용해 군사훈련을 받아 복무기간 단축(2년 4개월 : 타장교 기간은 3년 이상)
- 대학별 우수 후보생 장학금, ROTC 중앙장 장학금, 군장학생 지원금 군장학금 등 지원
- 전공학과와 연계된 병과 근무가능
- 입관 후 장교 급여 / 각종 혜택

문의처 : 대학학군단, 인터넷 www.armyofficer.mil.kr

금주의 식단

동국관	
월 (3/9)	비엔나볶음(2000)/돈가스(2500)/치킨튀김(2000)/참치전골(2500)
화 (3/10)	닭강정(2200)/햄박스테이크(2500)/카레라이스(2000)/육개장(2500)
수 (3/11)	돈육장조림(2200)/치즈돈가스(3000)/치킨튀김(2000)/김치볶음(2500)
목 (3/12)	해물경단(2000)/치킨가스(2500)/쇠고기떡볶이(2200)/순만두국(2500)
금 (3/13)	탕수육(2200)/햄박스테이크(2500)/콩나물비빔밥(2000)/우거지갈비탕(3000)

상록원

월 (3/9)	삼선전구이(2000)/새우가스(2500)/치킨골스스알밥(2200)/김치육개장(2500)
화 (3/10)	돈육계란장조림(2200)/두가지맛치킨가스(2500)/매운오삼볶음(2000)/설렁탕(2500)
수 (3/11)	소세지계장볶음(2000)/돈가스(2500)/쇠고기떡볶이(2200)/우거지갈비탕(3000)
목 (3/12)	오징어콜라볶음(2200)/수제가스(3000)/중국식볶음(2200)/김치찌개(2500)
금 (3/13)	제육볶음(2200)/삼육빙정식(2500)/참치김치알밥(2200)/순대국밥(2500)

아리수

월 (3/9)	참치김치알밥(2000)/오삼불고기(2200)
화 (3/10)	낙지콩나물비빔밥(2200)/육개장(2000)
수 (3/11)	불고기(2200)/새싹참치비빔밥(2200)
목 (3/12)	제육비빔밥(2200)/짬뽕(2200)
금 (3/13)	간지장밥(2000)/날치알회(2200)

학생중앙군사학교
www.armyofficer.mil.kr

논단

변종 보도지침

민주당 김우정 의원은 지난 달 11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청와대가 용산 사태를 통해 촛불시위를 확산하려고 하는 반정부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연쇄살인 사건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었다. 또 오마이뉴스는 이날 김 의원이 폭로한 청와대 '문건' 내용을 입수해 보도했다.

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사퇴하는 것으로 일단락 지으려 했다. 경찰도 마찬가지다. 처음에 경찰은 '홍보지침' 이메일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가 보낸 사실을 시인하자 그때서야 '청와대가 시인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먼저 시인 하나', '업무에 참고만 했을 뿐'이라고 말을 바꿨다.

<청. 홍보지침 내린 행정관 구두경고 야> "여론조작 지시-보고라인 밝혀야">(14일, 8면)에서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여야의 공방으로 다루는데 그쳤고, 16일 <청 '홍보지침 e메일' 행정관 사의>에서도 행정관의 사의 표면만을 단순전달했다.

16일 이후에는 조선·중앙·동아에서 '홍보지침' 관련 보도는 사라졌고, 강호순의 여죄발표에 또 다시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은 이러한 의혹을 자세하게 다루고, 철저한 규명을 촉구했다.

청와대와 경찰이 이메일을 주고받은 시점이 2월 3일이라고 밝히고 있어 조선·중앙·동아의 보도와 '홍보지침'을 연결 짓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1월 31일(총 26건)부터 2월 2일(총 24건)까지 집중하다 이후부터는 보도 건수가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조선·중앙·동아일보의 보도행태로 봤을 때 청와대의 '홍보지침'이 없더라도 용산 참사를 무마하고 바다에 떨어진 정권과 경찰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음을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언론자유를 뒤흔들 우려마저 있는 청와대 '지침'보다 '정권의 안위'가 더 중요했다. 스스로 언론의 양심을 저버렸다. 노골적으로 사안을 축소하는가 하면 '청와대 직원 개인의 문제'로 호도하며 '정권 감싸기'에 앞장섰다.

용산참사와 관련해서도 경찰의 살인

진압을 감싸고, '불법시위를 벌이다 죽었으니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 진실을 은폐해 왔다. 그래서 이렇게 태연하게 사안을 축소하고 '침착하게' 넘어가는지도 모르겠다.

여론호도 정부에 독

조선·중앙·동아는 이번 사안을 축소하는 것이 '정권을 돕는 길'이라고 여길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이번 사건을 축소하고 호도하는 것이야말로 '정권을 망하게 하는 길'이다. 언론을 조작하려는 '홍보지침'마저 모체화하는 조선·중앙·동아 신문시장에서 1, 2, 3등을 다투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울 따름이다.

한편 이명박 정권은 언론 보도에 대한 술한 외압 의혹, 방송장악 시도, 인터넷 통제 등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틀어막는 반민주적 행태를 저질러왔다.

이것으로도 부족해 '변종 보도지침'까지 만들어 국민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을 몰타기하고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 했다면 목과할 수 없는 일이다. '연쇄살인범을 내세워 공권력의 잘못을 덮으려 했다'는 발상 자체부터 엽기적인 국민기만이다.

실정 국민소통비서관실의 행정관이 '개인적'으로 한 일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청와대 직원이 '국민소통'을 내세워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일을 제 임무로 알았다면 그 자체가 이 정권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기 때문이다.



조영수 민주전문사민연합 대외협력부장

사설

글로벌화의 첫걸음 'DULA'

우리대학이 LA에 있는 동국로얄한대의 교명을 DULA로 바꾸고 글로벌 거점대학으로 육성할 것을 선포했다. 이번 선포의 주요내용은 분리 운영되던 동국 로얄 한의대를 현지 캠퍼스로 전환하고 국내캠퍼스와의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래 존재했던 한의학 분야의 대학원 과정에서 학부과정을 신설해 확대 개편하고 국내캠퍼스 학생들의 국제경험 기회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대학이 동국 로얄 한의대를 확대 개편하는 이유는 국제화를 대학의 주요 목표로 삼겠다는 의지와 맞닿아 있다. 국제화의 거점으로 동국 로얄 한의대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학교당국의 이같은 국제화 추진전략이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일단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국내의 각 대학들은 대학평가의 주요 기준인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방의 신생대학들은 입학성 전원을 해외에 파견하겠다는 과격적인 조건을 내걸기도 한다. 궁극적으로 대학이 키워내는 인재가 세계속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과정에서부터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번 동국 로얄 한의대의 현지 캠퍼스화 전략은 학부과정 개설과 함께 현지 학기제 도입, 학점교류 등 국내 본교생들의 다양한 국제경험을 쌓게 해줄 수 있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기 위해선 몇 가지 살펴봐야 할 점도 있음을 지적해두고 싶다. 먼저 DULA가 본교와의 다양한 교류의 창구가 되기 위해선 현지에서 인정받는 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 현지의 미국학생들도 입학하고 싶은 대학이 될 때 비로소 현지캠퍼스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단순히 학점교류나 어학연수만을 담당하는 캠퍼스로서만 기능에 제한된다면 그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또, 서울대나 고려대, 이화여대 등의 해외본교 설립을 추진했던 대학들의 계획이 대부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는 점도 눈여겨 보기 바란다. 다른 대학의 잘못을 잘 살펴 비슷한 오류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학교당국이 이런 점을 잘 살펴 명실상부한 현지캠퍼스로 DULA를 육성시킬 것 바란다. 그리고 우리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국제화에도 큰 보탬이 되는 교두보를 확보하길 바란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고 했다. 아무쪼록 이번 글로벌 비전 선포식이 세계속의 동국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만평

정명근 gmg@naver.com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오영교, 편집인 김용현, 편집장 정동훈
인터넷 동대신문 http://www.dgupress.com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구독문의 :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메아리

우리는 크리넥스가 아니다

▲지난 2006년 프랑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젊은이들은 "우리는 크리넥스(일회용 휴지)가 아니다"라고 외쳤다. 당시 프랑스 정부가 내놓은 '26세 미만 젊은이의 첫 취업에 한해서, 2년간은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최고고용계약법'이 시위의 단초를 제공했다. 200만명이 넘는 프랑스의 학생과 노동자들은 폭동에 가까운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결국 프랑스 정부는 최고고용계약법을 철회하고 말았다.

통한 잡 세어링(일자리 나누기)과 '청년 인턴제'를 대책으로 내놔다. 대졸자의 초임임금을 낮추고 그 예산으로 인턴 사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미 공기업이 대졸초임을 낮추지 않을 경우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엄포도 놓았다. 전국경제인 연합회도 이러한 정부방침에 동조해 기존직원들의 임금을 동결하고 신입사원들의 임금을 20%까지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의 대졸초임이 우리나라보다 낮다는 억지자료를 내놓기까지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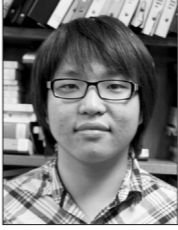
▲잡 세어링의 원래 의미는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과

용한다는 뜻이다. 더 나아가 임금을 줄이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고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것도 병행된 형태의 잡 세어링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국가에서 대규모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했던 제도들이다. 물론 이들 나라의 잡 세어링 어디에도 대졸 신입사원의 임금을 무지막지게 삭감하고 인턴으로 실업을 해결한다는 이야기는 없다.

▲어는 국회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포 공기업의 경우 2급이상 임원의 총급여(600여억원)에서 20%만 줄이면

연봉 3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신입직원 400여명을 뽑을 수 있다고 한다. 정부가 내놓은 실업정책이나 경제위기 대응책을 보면 하나같이 사회적 약자를 쥐어짜는 것들 뿐이다. 부동산 관련 정책이 그렇고, 세금관련 정책이 그렇고, 잡 세어링과 청년 인턴제도가 그렇다.

자본주의는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이 소비로 연결될 때 비로소 순환구조를 가진다. 대졸 초임을 쥐어짜고, 최저임금을 쥐어짜고, 인턴제도를 통해 쥐어짜고 나면 누가 기업들이 만든 상품을 소비할 것인가. 우리는 크리넥스가 아니다.



정동훈 편집장 gfd1226@dongguk.edu

기업인사관리자 초청특강

성공적인 취업을 위하여 200대 기업인사관리자를 모시고 2009년 상반기 기업인사관리자 초청특강을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기업분석, 채용 계획 및 전망, 선호 인재상, 자격요건, 취업전략, 채용 경험담, 질의응답
□ 대상/인원 : 전학년/회당 100명
□ 시간/장소 : 오후 4시 00분 ~ 6시 00분/다량관 세미나실
□ 접수기간 : 특강 전 일주일
□ 접수방법 : 본관 취업지원센터 방문접수(선착순)
□ 문의 : 취업지원센터(T:2260-3054)

Table with 5 columns: 회번, 일자, 특강명, 강사자, 분야. Rows include topics like '삼성전자 초청특강', '이오레퍼시프 초청특강', '우리은행 초청특강', etc.

* 상기 일정과 강사는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학생경력개발원 취업지원센터

모의직무적성검사 실시

최근 대기업 취업 1차 시험 통과와 결정적 변수인 직무적성검사의 대처능력을 위하여 대기업 직무적성검사를 실시하오니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재학생 + 휴학생 + 졸업생
□ 신청기간 : 2009.3.4(수) ~ 3.30(월)
□ 검사비용 : 무료! (학교 전액 부담)
□ 신청방법 : 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선착순 마감)
□ 문의 : 취업지원센터(2260-3054)

Table with 6 columns: 구분, 대상, 접수기간, 일시, 장소, 비고. Rows include '삼성 SSAT 해법특강', '삼성 직무적성검사', '대기업직무적성검사'.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신청 후 불참자는 향후 취업지원센터 프로그램 참가에 제한이 있습니다.

학생경력개발원 취업지원센터

외국어교육센터 강좌 안내

- 1. 등록 및 문의
●원어인 강좌
가. 개설기간 >3월 강좌 : 3월 9일-3월 27일(주 4일 3주간)
>4월 강좌 : 4월 6일-4월 24일(주 4일 3주간)
>5월 강좌 : 5월 4일-5월 22일(주 4일 3주간)
>6월 강좌 : 6월 8일-6월 26일(주 4일 3주간)
나. 수강료 : 90,000원
다. 접수 후 계좌이체 : 신한은행 140-007-481766 동국대학교
●ETS(English Study Tutoring) 제도 신설
가. ETS(English Study Tutoring)이란?
7명 이상의 학생들이 자체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반개설을 요청하면 원어인 강사를 섭외하여 특강을 개설해 드립니다.
나. 수강료 90,000원.
단, 특강은 수료 강의를 개설을 요청시 수강료 조정이 있습니다.
다. 수시 개설 가능
라. 영어 외에 일본어, 불어, 중국어도 가능
●장학 토익 특별 과정
가. 개설기간 >토의기초종합 : 2009.03.23-05.22
>토익 실전 : 2009.03.24-05.21
* 중간고사 1주 휴강
나. 각 반 선착순 100명 모집(총 200명)
다. 수강료 : 30,000원(80%이상 출석시 전액 환불)
라. 특전 : 동영상강의 무료제공, 교재 15% 할인(구내서점)
●접수 방법 및 기간
가. 원어인 특강 >접수방법 : 방문 및 전화접수(해화관 1층 외국어교육센터)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강좌개시일까지
나. 장학토의 특별과정
>접수방법 및 기간 : YBM에서 전담하여 접수(접수장소 : 추후 공지)
●문의전화 : 2260-3468, 3470, 3474
●강의실 : 추후 공고

Table with 4 columns: 시간, 내용, 회차, 일자. Rows show class schedules for '회화초급' and '회화중급'.

Table with 4 columns: 구분, 시간, 강사, 교재. Rows show details for '토익 기초종합' and '토익 실전'.

2009년도 예비군 훈련일정 공고

Table with 5 columns: 훈련 유형, 훈련 기간, 훈련 대상, 훈련 시간, 비고. Rows include '기본훈련', '1차 보충훈련', '전반기 시간 미달자 훈련', etc.

* 기타 훈련 관련 문의사항이나 상담 필요시 예비군 연대본부 방문 또는 전화 상담 (2260 - 3047-8)

2009학년도 1학기 예비군 전입신고(안내)

- 1. 신고 기간 : 2009년 2월 23일(월) ~ 3월 13일(금) (3주간)
2. 신고 대상
가. 일반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학부, 대학원)중 예비군 신분의 학생
나. 2009년도 편입생, 입학성 중 예비군 신분의 학생
* 대학원의 연구, 관리자 과정 / 복학과 동시 휴학자는 신고제외
* 2009년도에 전역한 학생은 2010년도에 전입신고
3. 신고 장소 : 예비군 연대본부 사무실 (본관 2층)
4. 신고 시 지참물
가. 전역증 (군번, 주특기, 입영일, 전역일 등 신고서 작성 시 필요)
나. 등록금 납입 영수증 (미등록자는 대학 예비군에 편성불가)
* 등록금 납입 영수증 분실자는 전입신고 시 확인가능
* 등록금 분할납부/학자금 대출 신청자는 연대본부에서 확인서 작성 후 전입신고 가능함
6. 기타 상세 문의 : 예비군 연대본부 (☎2260-3047-8)
* 휴학기간 중 2008년도 지역에서 부과된 훈련미필자는 신고시에 필히 훈련결과를 실무자에게 통보바람.
* 대학 직장 예비군에 편성하여 면화분위기에 기여하면 물론 법적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동국대학교 직장 예비군 연대

운동부 특집 2009 상반기 전략분석

“우승을 위한 필승전략, 2009 상반기 문제없다”



야구부 김학용 감독

80년대의 영광, 더 이상 추억이 아니다

우리대학 야구부는 80년대 대학야구부 제패(83, 84, 86, 87년 우승 4회, 준우승은 5회)하며 전성기를 누렸다. 그리고 작년 제 42회 대통령기 전국 대학야구대회에서 우승하면서 제 2의 전성기라는 평을 듣고 있다. 야구부 김학용 감독에게 올해 야구부 전략을 들어보았다.

김학용 감독은 80년대 코치생활을 하며 현재 한화 감독으로 있는 김인식 감독과 우리대학 야구부를 이끌었다. 그리고 현재는 야구부 감독으로써 다시금 '동국대'란 이름을 한국야구계에 떨치고 있다. "야구에서 첫째로 꼽히는 전략은 바로 수비"라고 말하는 김학용 감독. 2009년 야구부를 우승으로 이끌 김 감독의 전략은 바로 수비에 중심을 둔 조직 야구이다. 여기에 작년 우승을 이끈 노승호, 강병환 선수로 구성된 투수진이 완벽에 가까운 투구로 뒤를 받치고 있다. 이들은 이태원 포수의 신호에 따라 철벽 수비를 보여줄 것이다. 김동영 등 외야수, 내야수들의 수비력 또한 기대가 크다.

4번 타자 박지현 선수부터 시작되는 다이내마이트 타선에 불철주방 당긴다면 대학야구계에 상대가 없을 것이란다.

김학용 감독은 지난 2월 대만으로 다녀온 전지 훈련에 대하여 "텐진 라이온스와 같은 중국 프로, 실업팀과의 연습경기는 야구부 우승의 주춧돌이 될 것이다"며 "하지만 작은 부상을 당한 선수들이 빨리 회복을 해 주어야 전반기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80년대의 영광을 회상하면서도 더 이상 안주하지 않겠다는 야구부. 다시금 날아 오를 동국대학교 야구부를 기다린다.



농구부 서대성 감독

정신무장통해 발구름하는 한 해 될 것

작년 농구부에서는 김종근, 김강선, 최성근 선수가 프로팀으로 입단했다. 더불어 김승현, 기승호, 천대현 등 농구부 출신 프로 선수들의 뛰어난 활약으로 우리대학 농구부는 신홍 명문으로 부상했다. 이들의 성공가도에 대해 서대성 감독은 "성실함과 꾸준함은 타고난 재능보다 무서운 것"이라고 말했다.

서대성 감독은 "재작년과 작년, 주요선수들이 프로로 진출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올해는 개인기량이 뛰어난 선수가 적다. 또 타대학에 비해 키가 상대적으로 작은 센터진이 약점"이라며 자평했다. 이어 "올해 목표는 선수들의 정신무장이다. 우리대학 농구부 특유의 성실함과 근성으로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한 발구름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동계 전지훈련에서도 서 감독은 체력과 성실함을 강조했다. 뛰어난 체력과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겠다는 근성이야말로 우리대학 농구부를 이끄는 원동력인 것이다.

올해 농구부의 전체적인 전략에 대해 서 감독은 "무리한 공격 위주의 플레이 보단 우리 선수들의 특기인 체력과 근성을 살린 디펜스 위주의 전략, 속공으로 경기를 풀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체력을 중심으로 하여 다가오는 1차전 디펜스 포지션으로 센터 김동량, 파워 포워드 남궁준수, 스피드 포워드 강건희, 가드 김윤태 슈팅가드에 이민재 선수를 배치할 예정이며 식스맨으로는 센터 이성, 가드 배용, 스피드 포워드 김종범, 구경완 선수를 활용할 예정이다. 특출나진 않지만 남궁보다 2배 아니 10배 이상을 연습하며 최고를 향해 가는 농구부 선수들. 1차전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본다.



축구부 김종필 감독

“강력한 압박으로 경기 주도하겠다”

‘탄탄한 포백이 뒤를 받치고 강력한 압박과 패시력을 갖춘 3명의 중앙미드필더는 상대팀의 숨통을 쥔다. 최전방 원톱과 발 빠른 양 윙포워드의 공격은 상대방을 그로기 상태로 빠뜨린다’

김종필 감독이 꿈꾸는 우리대학 축구부의 올해 전략이다. "우리학교는 골 결정력 부족이라는 고질병이 있다. 무리한 중앙 돌파를 노리기 보다는 윙 플레이에 중점을 두고 세트 플레이를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하겠다"

골키퍼 김진현 선수가 J2리그 세레소 오사카로 이적함에 따라 이번 시즌엔 이호승 선수가 골키퍼로 활약할 예정이다. 이호승 선수는 김진현 선수만큼 화려하지는 않지만 안정적이고 수비진의 조율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선수다.

하지만 이런 축구부 필승 전략에도 문제가 하나 있다. 잔부상에서 큰 부상까지 부상을 입은 선수가 적지 않은 것이다. 만약 전반기 경기 전까지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전반기에는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없다. 선수들의 빠른 회복이 올해 축구부 최고의 목표다.

주전급 선수들의 졸업으로 인한 전력 손실 또한 무시할 수 없다. 2009학년에 입학한 1학년 선수들은 김 감독이 청소년 대표팀을 관리할 때 상비군에 있던 선수들이 다수다. 아직은 주축선수가 아니지만 점차 주전선수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안정된 세대교체 이후 우승을 노리는 축구부. 그들의 욕심이 그라운드에서 채워지길 기대해 본다. 이정민 기자 jeong0424@dongguk.edu

채현선 작가의 세상 느끼기

1. 모퉁이를 돌면

얼마 전에 이사를 했다. 갑수록 많아지는 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좀 더 넓은 서재가 필요했다. 그리고 나자 좀 더 넓은 주방과 거실이, 좀 더 큰 냉장고와 모니터가 필요해졌다. 이사를 하고 나서 내게 주어진 좀 더 넓은 공간을 바라보다가 정말 이것들이 내게 필요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 필연성의 끝에는 언제나 아빠가 서 계신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한다.’ 생전의 아빠께서 내게 해주신 말씀 중의 하나이다. 나는 아직까지 이 말이 품은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아빠께서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으셨으니, 그저 짐작으로만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책꽂이에 꽂힌 책들을 정리하며 이런 책도 있었네, 라는 말을 수십 번 반복했다. 뭐야, 똑같은 책이 세 권이나 되잖아, 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지났다. 나는 책을 많이 사는 편이다. 소설 쓰는 사람에게 당연한 일이 아닐까. 중요한 건 책을 많이 산다는 것과,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이다.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고백하자면 나는 늘 무리하게 책을 사고, 내 눈은 늘 무리한 목표를 향해 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할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한다. 불가능한 일이란 걸 알면서도 눈을 딱 감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미처 읽지 못한 책은 자책과 죄책감의 결과물로 쌓인다. 나는 그 결과물 속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며 소설을 쓴다. 그럼에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으며 후회하지도 않는다.

아빠는 너희가 읽지 않으니 내가 읽어주겠다며 자식들 머리맡에서 책을 펼쳐곤 하셨다. 그러다 종종 수수께끼를 내셨다. 답은 하나일 수도 모두일 수도 있을 것 같은 문제들이었다. 아빠는 끝내 정답을 말해주시지 않았다.

내가 겪어야 할 모든 과정을 내다보셨는지 아이러니컬하게 이런 말씀도 하셨다. ‘아님 말고.’ 나는 이 말이 정말 마음에 든다.

아빠는 내가 낸 수수께끼의 답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다.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모퉁이를 돌게 될 것이다. 그 모퉁이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내가 선택한 것이 정말 정답인지는 알 수 없다. 설령 그것이 틀린 답이라도 상관 없는 일이다. 모든 일의 결과가 좋을 순 없으니, 예기치 못했던 일이 생기기도 하고. 다만 내가 선택한 답으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가고 있다고 스스로를 믿는 것일 뿐이다. 그러다 보면 그게 정답이 되는 게 아닐까. 내가 소설가가 된 것처럼.

아님 말고. 이정민 기자 jeong0424@dongguk.edu



채현선

문화예술대학원 재학, 조선일보 신춘문예 소설부문 당선자



포수출신 4번 타자, 야구부 유망주 김동영 선수 강인한 체력 바탕, 포수출신임에도 뛰어난 타격감각

“말보단 우승으로 제 진가를 보여 드릴겁니다” 아직 어리지만 당찬 야구부 김동영(체고1·포수) 선수. 김동영 선수는 올해 김학용 감독이 발탁한 야구부 유망주다. 어렸을 적부터 야구선수 외에는 다른 꿈을 꾀보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포수란 포지션을 맡았다. 포수는 다른 수비 포지션에 비해 체력소모가 많아 타율이 저조하지만 김 선수는 타율 또한 다른 타자들에게 뒤떨어 지지 않았다고 한다.

4번 타자로 내정된 김동영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체력이다. 김군은 남보다 뛰어난 체력을 얻기 위해 매일 훈련을 거르지 않는다. 틈틈이 개인 훈련을 빼놓지 않음은 물론이다.

이런 김동영 군이 가장 존경하는 프로 선수는 진갑용 선수다. “올림픽이나 WBC 같은 큰 대회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모습에 팬이 됐다”며 “나도 프로에 진출하면 진갑용 선수 같은 선수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올 시즌에선 비록 포수가 아닌 외야

수를 맡을 예정이지만 팀 내 수비의 핵심이 되겠다 김동영 선수. 지난 2월 대만에서의 전지 훈련 중 텐진 라이온스와의 평가전에서 외야수로 나서 호수비를 펼쳤다. 그는 “매 경기 승리해서 동국대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올해 김동영 선수의 목표가 있다면 그건 바로 모든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 그라운드에서 공수를 뉬나들며 활약할 김동영 선수를 기대해본다. 이정민 기자 jeong0424@dongguk.edu

금주의 DUBS

감적발달 소녀들의 시골벽적 수다토크쇼 작은 아씨들



본 영상은 교육방송국 홈페이지(http://www.dubscast.com)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와 목소리는 점차 커지고 있다. 몇십년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만큼 그 영향력은 대단하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녀들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과연 여성들이 자신의 이야기와 생각들을 가식 없이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환경에 있다면 어떨까? ‘여자 넷이 모이면 생각이 트인다’는 말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그들. ‘작은 아씨들’ 프로그램은 토크쇼라는 형식아래 편안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나눌 수 있는 여성들의 솔직한 생각과 비밀을 들려준다.

방송시간 : 매주 화요일 1시 15분 기획·연출 : 김지영, 김현호 / 촬영·편집 : 이정화 진행 : 최혜미, 박소라, 변초희, 김정화

만원을 세상에서 가장 값지게 쓰는 방법. 만원을 사용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영화 한편, 테이크아웃 커피2잔, 음악CD 1장. 그러나 만원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더 많습니다. 힘든 학우의 등록금이 되기도 하고, 오래된 학교환경을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만원이 많은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동국대학교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동문 찾기 캠페인. “내 마음의 고향 -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대외협력단에서는 학교와 동문간의 협력과 동문 상호간 유대 강화를 위해 “동문 찾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현재 문교 학부와 대학원 출신 동문님의 연락처 데이터를 전산화 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왔습니다만 아직까지 미처 파악되지 못한 동문님의 데이터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동문 찾기 캠페인”을 통해 부족한 데이터를 충실히 채워나가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문교와 소식이 닿지 않은 동문님을 알고 계신다면 “동문 찾기 캠페인”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중앙도서관 멀티미디어실 영화상영 안내. 중앙도서관에서는 도서관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멀티미디어실 영화상영회를 매월 개최하오니 동국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기간 : 2009. 03. 09 ~ 27. 2. 일시 : 월~금요일, 14:00~16:00. 3. 장소 : 중앙도서관 멀티미디어실 A/V실. 4. 상영영화 : 사랑은 비를 타고 등 15편.

2009-1학기 도서관 이용시간 안내. 건물, 층, 자료실, 요일/구분, 평일, 토요일/일요일. * 기간 : 2009. 3. 2(월) ~ 6. 19(금). * 법학도서관과 중앙도서관 멀티미디어실은 일요일 휴관입니다. * 학기 중 일요일에도 중앙도서관을 개관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시험기간 중 이용시간 안내는 별도로 공지 예정.